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2 1982년 10월 2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October 25, 1982

OCT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정명훈 토론토데뷰 성공적

박력과 자신감넘친 지휘

토론토·스타,G &M도 찬사

◆20일과 21일 이틀간 로이·톰슨홀에서 토론토데뷰공연을 가진 정명훈씨

한국이 낳은 지휘자 정명훈(29)씨가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마지막 악장을 나자 로이·톰슨홀을 거의 메운 관객중의 누군가가 앵콜하고 소리쳤다.

비교적 난곡으로 알려진 프로코피에프의 곡도 젊고 패기있는 정명훈의 지휘에 완전히 용해되었고 그의 토론토 데뷰공연은 지난 9월29,30일 있은 그의 누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공연과 더불어 코리언의 이미지를 토론토의 음악팬에 깊이 심어 주었다.

20일 저녁8시 오케스트라가 대기중인 무대에 등장한 정씨는 성급히 인사를 끝내자 말자 바로 항가리언무곡인 졸탄·코달리의 갈란타 무곡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토론토·심포니의 하프주자인 주디·로만과 협연한 조셉·하이든의 하프·콘체르토 D장조에 이은 세르게이·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6번 E플랫단조 작품 111번에서 정씨의 역량은 아낌없이 발휘됐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인데 비해 3악장으로 끝나는 이 곡은 악기구성이 다양하고 곡의 해석이 어려워 젊은, 특히 데뷰공연의 지휘자로서는 좀처럼 곡목으로 채택치 않는 곡이다.

반주자 답게 하프협주곡에서는 소극적인 지휘를 보이던 정씨는 프로코피에프에서는 자신감과 박력을 쏟아냈다.

20일과 21일 이틀 있은 그의 토론토·심포니 지휘에 대해 특히 21일자 토론토·스타지는 정씨의 사진을 곁들인 5단 전면기사에서 "신은 정씨 일가에 이례적인 특혜를 내리신 것같다고 전제하고 얼마전 토론토·심포니와 협연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의 동생인 정씨는 제대로 교향곡같지도 않은 프로코피에프의 곡을 웅장한 박력과 서정성으로 종합시켜 극대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평했다.

또한 같은 날자의 글로브·앤드·메일지는 그의 "지휘자로서의 자신감과 성공은 토론토 데뷰공연을 위해 그가 고른 곡목들에서도 드러난다.(젊은 지휘자들은 예를 들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같은 것을 택한다)

코달리의 곡에서는 민속적 선율의 흐름을 깨지않는 강한 리듬, 프로코피에프에서는 탁월한 앙상블을 보여주었다"고 찬사했다.

LA에 거주하는 정씨는 53년 한국에서 태어나 7세에 이미 피아니스트로 서울시향과 협연했고 68년 뉴욕의 애네스·스쿨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하기 시작, 70년도에 뉴욕·타임즈태디오·영·아티스츠·콤프티션에서 피아노 1등 입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71년 쇼팡경연대회에서 1등, 74년 차이콥스키대회에서 2등으로 입상한뒤 16살부터 약2년간 누나인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3중주를 이루어 미국각지를 순회공연했다.

그는 75년부터 줄리아드에서 본격적으로 지휘를 익히기 시작, 뉴욕·유스·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 카네기홀에서 몇차례 연주를 가졌었다. 78년부터 3년간 로스앤젤레스·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있은 뒤로는 어느 악단에 메이지않고 세계각지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주요 지휘자로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금리하락에 불구

크레딧카드이자 올라

금리가 또 떨어져 21일 발표된 몬트리얼은행의 1년단기 모기지이자율이 14%임에도 불구, 일부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이자율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릴 작정이다.

석유회사인 쉘·캐나다는 11월1일부터 3% 올려 연 24%대신 연 27%의 이자를 물릴 계획이다.

비자, 매스터·카드등 주요 크레딧·회사들은 이자가 붙기전에 돈을 갚아 버리는 카드소지자들이 늘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연16% 이자와 써비스요금을 계산하면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는게 이자율을 내리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 각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22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카드종류	연이자(%)
비자	24.0
매스터카드	24.6
베이	28.8
심슨	28.8
시어즈	28.8
이튼즈	28.8
쉘	27.0
에소	27.0
텍사코	24.0

소련관리 한국방문

국제학술회의에 문화국장 참가

◆포포후 소련고관

(서울)소련문화성의 G.포포흐 미술문화재보존국장이 서울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17일 내한했다. 그의 방한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모임에 타스통신 전 도꾜지국장 스코벨레브등 3명의 소련인이 내한한데 이어 두번째 소련인의 공식방한이 된다.

국제회의 참석이 목적이긴 하나 연달은 소련인 한국방문은 소련의 대한정책이 크게호전되는 징조로해석, 주목을 끌고 있다.

포포흐 국장의 방한은 세계박물관협의회 아시아지역 회의 출석이 목적이다.

이 회의는 17개국 참석으로 지난 18일 서울서 개막됐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1973년6월)이래 공산권 나라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쓰고 있으며, 전대통령의 현정부는 86년의 아시아경기대회, 88년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권국가들과의 우호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측은 이제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참석이 소극적이어서 14년전 중동제국의 축구코치로서 소련인이 방한한 이외에는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 거듭된 소련인의 방한은 한국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소련이 종래의 자세를 바꾸어 한국으로 요인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대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뜻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이번의 계속적 요인 파한에 대해, 김일성의 중공방문등 북한의 중공 접근을 견제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해설 대한정책 개선징조 보여

외교수립등 정치개선 요원

한국정부는 이번 잇달은 소련관계자의 방한을 소련의 대한정책 변화징조로 보고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정부는 최근 김일성의 중공방문으로 중공이 북한에 전면지원을 약속한 점을 예의주시하고있다.

김의 방중에 관해 한국국방당국은 국회답변에서 "중공의 북한에 대한 원조증가는 소련의 북한에 대한 원조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위기감이 증가하는 시기에 소련은 「대한접근」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의 동향을 관측통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진일보로 보고 있다.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UN 동시가입, 통일헌법 제정등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는 소련및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소련에는 78년 신현호 보사부장관 파견을 비롯, 모스크바개최 국제회의 참석으로 적극적 접근의사를 표시해 왔다.

더우기 전대통령 집권후 공산주의 문헌의 부분적 해제등 공산권에 대한 접근책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련측의 2중 파한은 이같은 한국자세에 대한 소련측의 적극적 반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련이 이를 계기를 한국에 대한 해빙정책을 추진하리라는 견해는 시기상조다. 소련도 중공도 한국과의 접촉은 현재 스포츠, 문화, 경제면등에 국한되고, 외교관계 수립을 포함한 정치면에서는 여전히 서로 한계를 긋고 있다. 그것은 북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정부도 신중을 기해 소련관계자의 한국방문 보도를 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반공을 국시( )로 삼는 한국에서 급격한 공산권 접근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 역시 접근을 피하고 있는 중공에 대한 배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견해로 이번 소련관계자의 방한이 비록 「해빙」에의 일보접근이 된다하여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여러 장애를 타고 넘을 각오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통은 보고 있다.

금주의 행사

—10월25일(월)~31일(일)—

◆10월29일(금) 하오 7시30분
워커톤 시상식
곳: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
연락처: 463-6334(Mr. Lee)

◆30일(토) 하오7시
고종옥신부 환송파티
곳: St. Paul 성당(83 Power St. Tor.)
초청대상: 일반교민및 교우
회비: 무료
연락처: 863-0416 (Mr. Yu)

◆31일(일) 하오5시
순복음토론토교회 집사·권사 취임예배
곳: 순복음토론토교회(1 King St., Weston)
연락처: 881-7162, 247-9577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금주초 서거한 고 존·로바츠 전온타리오 수상의 미망인 케서린·로바츠(36)여사(오른쪽)가 21일 성·바오로 앵그리칸교회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 슬픔을 억누르고있는 모습. 좌로부터 고인의 딸인 로빈(29), 베이크씨, 로바츠씨의 의붓딸 킴벌리(17)의 모습이 보인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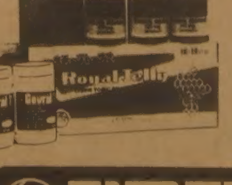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다량입하
비타민, 한약 세일
건강한 생활

비타민류
●종합비타민
●비타민-E
●간유구
●간장보호제
●지브랄-T
●로얄제리, 원액
※새로 나온 알로베라 비타민
상어간기름 비타민



한약류
●녹용(긴필산)
●우황청심환(동인당)
●편자환, ●사향
●웅담(카나다산 진품)
●삼용환(신경통특효약)
●기형환, 용각산, 구심등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39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745-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축
전국체전 럭비 우승

금년 모국체전에서
모교 선수들
전통의 럭비부
19년만에 다시
우승 영예 획득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 김현모외
동창회원 일동

East AsianLibrary
Rm 02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설득불구 대만망명을 요구 한국으로 탈출한 중공장교

$200만 걸린 한국땅의 중공미그기

한·대만·중공간의 미묘한 3각외교

(대만)자유중국 관리들은 미그19기를 몰고 한국으로 날아온 중공공군 오영광(25)소령이 한국정부에 대해 대만으로 보내줄것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오소령에게 한국에 망명하든지, 아니면 미국등 제3국으로 망명할 것을 설득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리들은 이같은 정보를 서울의 정보소식통으로부터 알아냈다고 말했으며 이 소식통이 주한 자유중국대사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자유중국정부관리들은 또 한국당국은 오씨가 자유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느라고 오씨의 탈출에 대한 공식확인을 사흘이나 미뤘다고 밝히고 주한자유중국대사관은 오씨의 망명요구처를 직접 확인키위해 팅·모우·신대사 또는 대사관직원과 오씨의 면담을 주선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소령은 한국땅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자유를 찾아왔다. 대만으로 비행하기 위해 재급유를 해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만신문들은 최근 한국의 대중공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유중국정부는 이같은 한국측의 도를 충분히 알고있다.

이같은 미묘한 관계를 잘 알고있는 대만의 한 관리는 『대만은 미그기를 접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씨의 신병을 받아들이는 문제만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61년 9월15일 한국에 불시착한뒤 대만으로 망명한 카오·유·충씨(44·현 자유중국공군대령)는 『내가 동료1명과 함께 한국에 내렸을때도 한국측은 대만으로 가지말고 한국에 남아있으라고 설득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결의가 굳은 것을 알자 한국정부는 3주후에야 대만행을 허락했었다』고 밝혔다.

미·북한 교역사실 드러나

3년간 31만달라, 홍콩지 보도

(서울22일=연합)한국외무부는 22일 북한과 미국이 1979년부터 직접교역을 해왔다는 홍콩 신문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파·이스튼·이코노믹·리뷰는 최신판에서 일본 동경에서 입수된 미상무성자료를 인용, 79년부터 81년사이에 미국과 북한과의 쌍방교역량이 31만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측은 이보도를 부인했다.

대사관의 한대변인은 미국무성전문을 인용, "미국의 자선기관이 긴급시 비상업적인 의료장비를 수출한것을 제외하고는 직접교역을 한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등에 금수조치를 취해왔다.

소득격차 줄어

한국농촌·도시간

(서울21일=연합)한국의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21일 발표된 정부통계에 의하면 79년 농촌가구소득은 2,629,000원(US$3,530)으로 도시가구당 소득의 84.7%이던 것이 80년도에는 84%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으나 81년도에는 96.6%로 크게 좁혀졌다.

지난해 도시가구의 년평균 소득은 3,817,200원으로 나타났다.

황용현부동산

세일즈우먼 추가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에 새로운 세일즈우먼이 합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이로서 세일즈담당직원이 남녀 2명씩 4명으로 늘어났다.

전 실협부회장 임철원씨의 부인인 임분옥여사는 지난 10월초부터 근무했으며, 강정숙 여사와 같이 여성고객들에 대해 보다 나은 친절을 베풀겠다고.

전화는 449-8644(B), 533-9061(R).

테레콤사 한국에 기술판매

대한전선과 제휴, 통신기재

(토론토 21일=연합)캐나다 노던·텔레콤사는 한국대한전선과 사무용 통신기재에 대한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캐나다회사가 한국에 디지틀 노우·하우(Know-how)를 제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노던·텔레콤은 대한전선으로부터 노우·하우 제공에 대한 일정액의 로이얄티를 받게된다.

이 계약에 따라 노던·텔레콤은 대한전선에 부품을 조립 제공한다.

노던·텔레콤사는 캐나다에서 최대의 통신기재회사이며 북미에서는 두번째로 큰 회 사로 한국에 6천만달러 상당의 디지틀통신장비를 이미 판매했다.

여성요리강습

한인회부녀부

토론토한인회 부녀부는 23일(토) 낮12시반 한인회관(20 Mobile Dr., Tor.)에서 무료 요리강습회를 연다.

조영호씨 지도로 실시하는 이 강습회는 색단지, 구자, 생선찜, 재래식 닭찜등의 요리를 강습한다. 수강희망자는 앞치마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오는 31일은 할로윈. 소방당국은 즐거운 어린이들의 놀이때 각종 사고를 예방토록 주의사항을 알리고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暴力의 사나이

<93>

얼굴없는 死者 ⑰

毛世의 신상명세 메모… 주소地찾아…

그들은 모피숍으로자리를옮겼다。

마현사는 수첩에다 중요한 것들을 급히 메모했다。

이름=毛世

주소=서울성북구 S동 315번지(13통9반)

등록넘버=M564995-276138

직업=상업

W호텔투숙일자및 호실넘버=①9·29-1-2515 ②10·27-2019 ③12·1-1933, ④12·4-1529

네장의 숙박카드에 나타난 필체와 기재내용은 동일했다。

그들은 한동안 묵묵히 차만 마셨다。 서로가 상당히 흥분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시키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아직 몇군데 남았나?』

한참만에 김형사가 물었다。 그것은 중국 요리집을 가리켜서 물은 말이었다。 지금까지 여섯군데를 다녀보았는데 12월1일을 전후해서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 곳은 W호텔 중국요리집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그 인물에 대해 뭐라고 단정을내린다는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었다。 그런줄 알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거는 기대가 자못 컸다。

『서너군데 남았읍니다。』

『마저 돌고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네, 그러죠。』

그 다음부터의 일은 빨리 진행되었다。

그들은 두군데씩 나누어 조사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때 그들은 약속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그쪽은 어때?』

『없읍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朴男 그림

『그렇다면 모세라는 사람을 조사하기로 하죠。』

『그럴수밖에 없겠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내일 하는게 어떨까?』

『김선생님은 돌아가계십시오。 저 혼자 알아보겠읍니다。』

밖에는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길바닥은 몹시 미끄러웠다。

김준호(金俊鎬)형사는 마형사의 뒷모습을 쏘아보다가 하는 수 없다는듯 그 뒤를 따라나섰다。

나이가 나이니 만큼 그는 젊은 사람처럼 추위를 무릅쓰고 뛸 수가 없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돌아다니는것보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다。 늙은 아내의 무릎을베고 누워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나 듣고있다가 기분좋게 잠들고 싶었다。

그들은 추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어깨를 움크리고 걸어갔다。

그들은 먼저 모세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밤중에 주소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동회를 우선 방문했다。

동직원 두명이 그들을 맞았다。 숙직자들도 방문객들이 형사임을 알자 잔뜩 경계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읍니다。』

마인은 모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놓았다。

〈특별기고〉

한인 총연합회에 대해

정일송(한인총연합회원· 전런던한인회장)

◆정일송씨

본인은 지난번 회합에서 회장으로 부터 회칙개정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의뢰받았으며 이상에 피력한 의견을 반영한 회칙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요강을 그때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식총회가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개정안을 토의할 수는 없었으며 회장단에서 새로운 의견을 청취하여 정식개정안을 차기총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나는 본란을 통하여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장단에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싶다. 과거에 총연합회는 서면결의에 의한 회칙개정의 전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회칙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칙을 서면에 의하여 개정하고 차기 총회는 개정된 회칙에 의거한 대표자(대의원)의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될때까지 수고스럽지만 현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추진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항간에 일부지상에서 총연합회를 비난하는 사설이나 기사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첫째, 총연합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본 중에서 회의 이름을 빌어 목적에 어긋난 일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서 당연하고 또한 그러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장본인은 한인사회에 사과를 해야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분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뉘우침의 자세에서 우리가 해야할 많은 일들에 진정한 봉사를 함으로써 동참하기를 바란다.

둘째, 모신문 사설에서 현한인총연합회를 가리켜 「친목단체에 불과」, 「날조된 대표기관」, 「대부분이 한국정부의 대행기관인양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등의 지극히 저열한 표현수단을 동원하여 모멸하고있는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몇사람이 설사 그럴다 치더라도 전체를 그렇게 공격하는것은 대중을 상대로 한 신문의 「사설」을 의심스럽게 한다. 동신문의 같은 날자 이면기사에서 말했듯이 「30여명의 각지역의 인사」중 14명은 현직 한인회장또는 회장의 위임장을 갖고 참석한 그 지역의 대표자이다. 나머지는 직전의 한인회장 또는 연사로 초빙된 분들이다. 이분들이 개인의 업무를 희생하면서 「한인의날」을 기념하고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였던 것이다.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가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개척해나간다는 신념에 차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정부의 시녀가될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가 이곳의 정부로 부터 보조금(그랜트)을 타는 것처럼 조국의 정부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 살지만 조국과 강한 유대를

책임감없는 모신문 사설

「날조된 대표기관」운운 유감

갖는 것은 한국계 카나다 시민의 모임이란 자체에서 나온 당연한 일이다. 논설자가 부당한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여 충고한다면 시정해 나갈수 있을것이다.

세째, 한인총연합회의 성립여부에 관련한 지역한인회의 인준, 이 주장은 그당연성을 부정할수는 없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 찬성할 수가 없다. 1)시기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적합지 않다. 지금 총연합회를 창립한다면 모르되 한인총연합회는 기존단체로써 존재해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

2)전지역 한인회가 동시에 인준을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15개 지역한인회중에서 1개라도 부정하면 총연합회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것인가? 예를들면 토론토한인회가 부정했을때, 또는 회원 100명 미만의 지역한인회가 부정했을때 여러가지로 제기할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가지 두려운 사실은 「전회원의 1%정도 모인 회의에서 구성된 토론토한인회 집행부는 토론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든지 또는 지역한인회의 인준시에 1%정도의 회원이모여서 결정한 인준은 무효다라고 인준한 후에 동사설자는 논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시비는 끝이 없다. 현한인총연합회는 전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 잘못은 시정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모임으로 키워나가야 할줄로 생각한다.

네째, 이번 「한인의 날」행사중 이틀째 저녁 「한국의 밤」행사에는 모국정부와 이곳 정부를 대신하여 외무부장관과 트루도 수상의 축하 멧세지도 있었다. 이러한 멧세지는 몇몇 회원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계 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신문이 이런 내용을 교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의 사명이요, 예의라 생각한다.

연예 短信

그레이스·켈리 一生그린 TV 영화제작을 서둘러

○…그레이스·켈리의 일생을 그린 TV영화제작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엠버시 텔레비젼사는 ABC방송국과 모나코왕가의 재가를 얻어 다시 제작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

「더 그레이스·켈리 스토리」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그레이스·켈리의 사춘기 시절부터 1956년 레이니에 3세의 왕비가 되기까지 영화배우로서의 생활을 그린것. 2시간 방영의 이 영화에서 그레이스역에는 「찰리스 엔젤스」프로에 출연했던 세릴·라드가 맡게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엠버시사는 일년전부터 구상해오던 이 영화제작이 그레이스왕비의 반대에 부딪쳐 주춤했다가 그녀의 사망 6주전에 제작허가를 받은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왕비를 추모하기위해 만들어질 이 영화는 왕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을 예정이다.

브라운知事 上院出馬모금 마이클·더글라스디너파티

○…최근 마이클·더글라스는 산타바바라 그의집에서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한 캘리포녀주지사 제리·브라운을 위한 1천달러짜리 디너파티를 개최.

이 파티에는 브라운을 비롯하여 그의 걸프렌드 린다·론스타트, TV극 「다이너스티」의 스타 린다·에반스와 그녀의 보이프랜드 조지·산토·피트로, 그리고 「다이너스티」의 또다른 스타 파멜라·수마틴, 발레스타 루돌프·누레예프등이 참석했는데, 이자리에 에반스를 초대한것이 잘못이었다고 짓궂은 농담들.

이유는 에반스의 보이프렌드가 등을 돌릴때마다 브라운은 에반스와 이야기를 나누었기때문.

반면 론스타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레예프와 보냈다고.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자개전문가구"

La Maison Nacrebec Inc.

금년말까지 교민들께 도매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응접실 각종 테이블, 바-아 셑트, 부페 셑, 침대 셑
⊙자개의 멋과 품위를 이용한 "현대식 서양가구"

※지역 대리점이나 쎄일즈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요망.

공장 : ☎1-514-527-1403
집 : ☎1-514-374-2846
4297 FRONTENAC MONTREAL, QUE.
대표 강유수

물의빚은 "고추 좀 보자"

뉴저지 교포 추행혐의로 피소

원고 미국소년부모 고소취하, 가까스로 방면

(뉴욕지사) 뉴저지주 킹스턴에서 식품점을 경영하는 한 교포가 가게에 온 미국소년에게 "고추 좀 보자"며 손으로 잡았다가 소년의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으나 14일 부모들의 고소취하로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교포 김진후씨(31·가명)는 지난 9월초 스페인계 사내아이 3명과 여자아이 1명이 식품점내에 설치된 전자오락기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자 "이놈들 고추 좀 보자"며 무심코 이들중 한 소년의 신체에 손을 대 어린이 추행 혐의로 피소 됐었다.

지난 5일 법정에 불려간 김씨를 위해 한미우호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미국인변호사 피엘·피아이씨와 변호인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진승박사(펜주정부 노동청근무 방범대책위원장)는 김씨의 행동은 "아들을 선호하는 동양의 풍습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라고 변호했다. 유박사는 자신이 템플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사회학)논문을 제시하면서 김씨의 행동은 동서양의 관습차이에서 온것이며 단지 귀여움의 표시였으므로 어린이 추행 혐의를 받은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질문에 대해 보충설명에 나선 검찰 대민담당관 린·라이버그씨는 자신이 오끼나와에 미군으로 주둔한 적이 있어 한국, 일본등 동양의 관습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김씨의 행위가 동양에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의 완곡한 변호를 들은 소년의 부모는 김씨의 행동을 이해하고 취하의사를 표시, 법원은 14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기각했다. 유박사는 올들어 필라지역에서만 이러한 경우가 두번째라고 말하고 사건을 과장해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저질 미국인들도 있다면서 교포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동석목사 위임

키치너워터루한인교회

키치너·워터루한인교회는 24일(일) 하오8시 KNOX 장로교회(55 Erb St, W. Waterloo)에서 정동석 목사 위임 예배를 거행한다. 연락처: 743-0816(정목사-토론토), 576-4926(김진욱 장로-키치너).

<맹진사댁 경사>선정

극단 "얼" 구정께 창단공연

지난 9월 탄생한 캐나다 교민사상 최초의 극단 "얼"은 창단기념으로 오영진 원작 <맹진사댁 경사>를 공연하기로 결정, 24일부터 대본읽기에 들어갔다.

공연시기는 내년 2월의 구정 전후로 잡고 극단 "얼"은 첫공연 연출자로 대표인 이장성씨를 정하고, 앞으로 약 3개월간 연습을 갖는다. 여건이 허락할 경우 뉴욕, 몬트리얼, 런던등지의 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다는 극단 대표 이씨는 22일 첫 작품으로 맹진사댁 경사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의 풍속도가 드러나는 작품이며 코메디이면서도 메씨지가 있고 교민들로 하여금 상연동안 실컷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줄만한 대중성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극단 "얼"은 이번 공연을 위해 한국의 극단 "실험극장"으로부터 대본을 긴급 공수받았다.

<맹진사댁 경사>는 56년 문교부로 부터 최우수 시나리오상과 70년대에 제3세계 연극제에서 수상한 풍자희극으로 <시집가는 날>이란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다.

등장인물은 20여명.

경험여부를 막론, 연극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입을 원하고 있는 극단 "얼"의 연락처는 960-0074(이장성), 463-7423(이정원) 혹은 극단 사무실겸 연습장소인 삼우스튜디오(537-7630 조각가 장연탁씨).

11월부터는 매주 수·일 연습을 갖는다.

교민동정

◆이종소(내고향통닭집 경영)=지난 11일 새벽1시 블루어에서 일어난 칼부림(본보 14일자)사건에서 장본인들의 시비가 통닭집에서 시작(칼부림은 바에 나가 은행 뒤편서)됐드는 기사로 말미암아 손님이 부쩍 줄어 고민(?)이라고.

"칼부림 사건과 통닭집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교포들은 여전히 내고향통닭집을 애용 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자의 광장> 밤하늘 이야기

장정숙 (스카보로)

언제부터인가 달과 별과 은하수, 그리고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홀연히 어느날 밤 잠자리에서 토론토의 밤하늘에 별이 있었던가? 이러한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그 별을 확이하지 못한 그 밤으로부터 여러날 여러달이 지나갔다. 나는 자고 새면 두더지처럼 땅밑으로 기어들어 엘레베이터라는 굼벵이 등에 업히어 인공위성이 올라갔다 오고도 부족하여 자꾸만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고층건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24시간이라는 쳇바퀴 안에서 오늘을 살기에 급급하였다.

정서라는 것은 사치인양, 과거라는 것은 "타부"인양 소외시켜 놓고, 오로지 단조로움의 평행 속에서 어느덧 초승달이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어, 그것이 기울어 그믐달로 되돌아가고, 또 오고 하는 사이에도 밤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다.

세상과 인심은 바뀌어도 사람들은 곧잘 날씨얘기를 주고 받으며, 만나고 헤어짐을 되풀이 하고, 혹은 짧은 여름을 안타까워 하였다. 세월의 흐름을 못미더워 하면서도 밤하늘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손자에게 달과 별얘기 들려주기를 그만 두었고, 낭만을 속삭이는 젊은 남녀는 한쌍의 불나방이 되어 네온싸인이 깜박거리는 거리를 찾아 헤매었고, 여인들은 크리스탈·샨데리아가 좋아 두껍게 치워진 장막, 창문밖의 밤하늘은 아랑곳이 없었다.

별을 기어이 보아야겠다는 마음의 약속이 있은 후 어느날 밤, 여느때와 같이 늦게야 돌아온 내집 문턱에서 차를 세울 때 갑자기 별생각이 난 것이다. 황황히 뛰어나가 잔디밭 한복판에 서서 올려다 보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아니 하였다.

"이럴 수가!"

다시 눈을 비비고 올려다 보고, 두 팔을 벌리고 빙빙 돌면서 별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당황하여

"아니 정말 토론토의 하늘에 별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그 서울하늘에 별이 있는가 말이다."

별이 없는 하늘이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만 같아 얼결에 뛰어든 부엌에서 얼마전 한국을 다녀온 딸이 늦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얘야, 한국하늘에서 별 보았니?"

"아니요. 오염 때문에 서울에서는 볼 수 없대요. 강원도 인제같은 촌에 가면 아직은 별이 보인대요."

"옳아! 그러면 이 토론토에도 그토록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로구나."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밀어닥쳤다.

도무지 별이 없는 하늘아래 산다는 것이, 이것이 분명히 미친 일이지. 까마득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별이란 내가 올려다 보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을 줄 알았는데······.

슬픈 얘기로구나. 그래 밤하늘에서 별이 하나 둘, 그리고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가 담긴 은하수가 다 사라져 버렸다니···. 별똥이 없는 하늘에는 소망을 걸 때도 없고···. 한두번 보아온 보름달은 너무나 밝은 한길의 수은등 때문에 그만 무색하여 그 처절하도록 창백하고 맑은 빛을 잃어버렸고, 초가산간 집 짓고, 떡방아 찧고 살던 토끼는 세상이 시끄러워 선녀의 품으로 돌아가 버렸나 보다. 이제는 영영 가버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깨어진 조각 조각 모아 볼 이듯 별도 달도 없는 하늘을 보며 나는 잃어버린 노래를 하나 둘 이어보는 것이었다.

새 映畫

예스! 졸지오

내용보다는 파바로티의 노래가 일품

「Yes, Giorgio」는 파바로티의 노래만 없었다면 지리해 몸살이 날 영화다. 오페라 테너가수로선 B급이었던 고 마리오·란자의 전성기에 그의 명성을 이용해 만들었던 많은 B급영화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 「패튼」같은 수작을 만든 명장 프랭클린·샤프너감독이 어떻게 이런 터무니 없는 영화를 만들었는지.

연기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이 3류코메디에서 특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주연여우 캐슬린·해럴드의 장작같은 연기와 구닥다리 상투수법인 음식집어던지기 그리고 기가 차 실소가 나오는 기구타고 노래부르기등.

파바로티를 스크린에 등장시키기 위해 억지로 엮어놓은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태리출신으로 명성이 드높은 테너 졸지오·휘니(투치아노·파바로티)는 충격만 받으면 목소리가 죽어버린다. 그가 어느날 보스턴야외음악당에서 열창을 하다 또 이런 증세에 걸리는데 이때 그를 치료하러 나타난 인후과전문의가 예쁜 여의사 파멜라(캐슬린·해럴드).

물론 둘은 사랑에 빠진다. 이때부터 둘은 사랑하고 다투고 울고 웃으며 미전국을 누비며 노래부르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영화가 끝난다.

이 영화를 보면서 파바로티의 「뫼도」는 몹시 서툴다는 것을 느꼈는데 관객을 억지로 웃기기 위해(그런데 웃음이 나오질 않는다) 저질 코메디숏법을 총원하는가 하면 산더미만한 덩치의 파바로티가 연기를 한답시고 표정을 짓는 모습은 안스럽기조차 하다.

그러나 역시 파바로티의 노래만은 일품. 대형화면에 거구의 그가 멜로디가 흐르는 하늘울림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잠시나마 형편없는 영화라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같은 팝송을 부를 때면 듣기 거북하지만 베르디의 「리골렛」중 「여자의 마음」이나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흐를땐 감탄하고 특히 라스트신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무대에서 푸치니작 「투란도트」중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를 포효할때 넋까지 삼키는듯 하다. 등급PG. MGM UA작 선셋 패시픽 시네라마 등. <津>

▲파바로티와 해럴드는 싸우고 웃고 입맞추고 울면서 영화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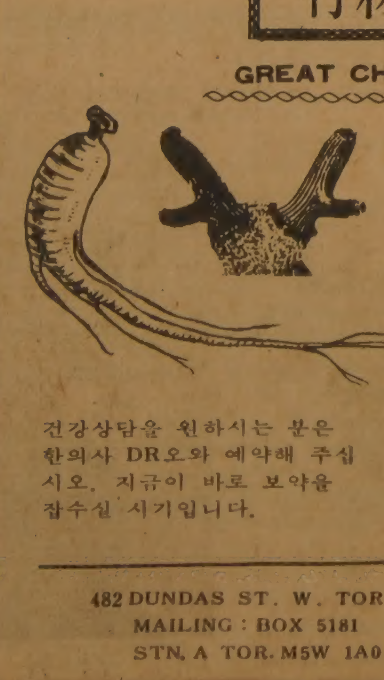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토: 오전11시-오후3시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TV판매
☎ 532-0210 손병헌

토론토시
써머타임 해제
1982년10월31일(일)
시의회에 의해 발표되었던 4월 25일부터 1982년 10월31일까지의 써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시민들은 시계를 다시 1시간 늦게 돌려 놓으십시요.
10월31일 오전2시에 바꾸십시요.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30PM



믿음의 형제 자매 님들께 드리는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간 토론토시내에서 "기독교 복음침례회 토론토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경강연회를 한다는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하고 있읍니다.

이 교회는 전통적 침례교회와는 전연 무관한 교회이며 한국의 장로교 총회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바 있으며, 작년 본 교역자회의 사이비종교 연구위원회에서도 이단종교로 규정하고 그 진상을 신문지상과 책자로 발행한바 있는 일명 구원파 또는 평신도 복음전도회라는 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토론토 한인교역자회 발행, 1981 "사이비종교란?" P31.)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거짓교리에 현혹됨이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복음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토론토 한인교역자회

한국일보

"세계尖端技術 빨리 습득"

全대통령、技術振興확대회의서 강조

◇全斗煥 대통령이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有功者들에게 훈장을 달아주고있다.

"기술原産地 진출 적극화"
英才교육 20代博士 배출
科技·文敎보고

全斗煥대통령은 20일『오늘날의 국가관계는 資源과기술에 의해 垂直관계가 형성되고있다』고 지적하고『우리가 自主독립국가로서의 自主性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분야에서 세계첨단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제3회기술진흥 확대회의를 주재、李正五과기처장관으로부터「기술고도화를 위한 國際化전략」、李奎浩문교부장관으로부터「과학기술교육의 진흥방안」을 각각 보고 받은뒤 이같이 밝히고『우리도 하루빨리 선진국과의 垂直관계를 벗어나 水平관계를 유지하려면 고급인력양성을통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정부와 기업、연구소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그리고 국내 새개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등이 뒤따라야 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어려운 80년대의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걸리는 단계적발전보다 이를 뛰어넘는 躍進하는방법이 돼야 할것』이라고 밝히고『이를위해 대기업들은 기업들이 갖고있는 최첨단기술과 정보를 중소기업에 과감히 전파、이전시켜주는 상호보완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처와 문교부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科技處보고내용

李正五과기처장관은 보고를 통해 선진기술 原産地에 연구소를설치하고 기초와 응용단계의 미완성기술도 적극도입하는 한편 해외의 첨단기술을 가진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우리경제의 당면과제는 기술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추진력을형성、수출과 성장의한계를 극복하는일』이라 전제、『이를 위해 지금까지 다져온 우리의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非核心的인 주변기술을 뛰어넘어 中間據點이 되는 핵심 기술을 먼저 집중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기술의 두터운 장벽을 돌파、최단기간내에 선진기술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또 5천여명의 재외한국과학기술자를 短期초빙하고 은퇴 외국인 기술자및 年暇과학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文敎部보고내용

李奎浩문교부장관은 과학기술교육진흥 방안으로 초·중학교의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고교과학기초과정의 전과목을 오는84학년도부터 필수화하고、실험실습시설을 현재의 55%에서 85%선까지 확충하며 20대에 박사학위를받을수있도록 英才를 조기에발굴、교육시키겠다고보고했다.

李장관은 또 이英才교육을위해 시·도별로 과학고등학교를 1개씩세우며 공고및공업전문대학의 기술교육 강화를위해 공고및실업계 고교는 무시험입학 추천제를 적용、정원의 50%까지 특별선발하고 편중화지역 공고의 수업료를 일반학교보다 적게하며 공업전문대학을 종합편성、부실전문대는 정비 (각종 학교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과학기술교육진흥책으로 ▲유치원부터 과학기술재능의 조기발견을 위한 놀이기구개발 ▲이공계대학생들에대한 장학금지급 대폭화대 ▲대학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과의 연계성확립 ▲재외과학자의 적극유치 ▲우수과학교사양성및 재교육강화등을 보고했다.

한편 全대통령은 이날회의에서 金忠吉(43·한국과학기술원교수) 姜玟鎬(36·한국전기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崔相三씨(42·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에게 국민훈장 冬柏章을、許松烈씨(61·大園鋼業사장)에게 鋼塔산업훈장을주었다.

"淨化퇴직公務員 特採"

國會 9개常委 질의·답변

국회는 20일하오 法司 外務 內務 財務 國防 文公 農水産 商工 建設등 9개 常委를열고 소관부처별로 업무現況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벌였다.

外務委 李範錫외무장관은 보고를 통해『일본의 교과서 시정을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經協교섭의 재개문제도 양국관계개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유럽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및 경제협력 강화책의 하나로 83년중에 韓·EC(歐洲共同體)간의 고위협의회를 열고 駐韓EC常駐대표부의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83년초 소온EC집행위원장을 訪韓토록 초청할예정』이라고 밝혔다.

內務委 朴贊兢총무처장관은 지난80년 정화조치로 퇴직한 공무원의 복직여부에대해『금년8월이 재취업이 허용되는 기간이었으나 아직 기업이 마안돼 희망자가 없었던것으로 안다』고 말하고『특채요청이 있을때는 이들에 대해 차별없이 동등하게 심사、임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農政관계기구통폐합방안 각가지 일선기구의 축소개편문제에 대해『현재 정부기능분석작업이 진행중이므로 이 작업에서 추출되는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法司委 裵命仁법무장관은 질의에 대해『앞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과정에서 人權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경우 그책임을 철저히 물을것이며 그 非違에 상응한만한 응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법원은 날로 증가하고있고 검찰수사는 國法질서와 人權보호라는 두가지기능을 갖고있는데 人權보호에더욱 치중、지난날과 같은 人權侵害사례는 再發되지않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裵장관은 또『어음부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가한다는것은 많은 문제점이있다고본다』고말해 어음부도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姜慶植재무장관은 지난 본회의 답변에서 어음부도사건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검토하겠다고밝혔었다.

"美·蘇 미사일減縮협상 失敗하면 西獨에「퍼싱Ⅱ」배치"

西獨軍 총사령관

【하겐(西獨) AP=聯】유르겐·브란츠서독군총사령관은 19일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미국과 소련간의 유럽배치 미사일감축협상이 성과없이 끝날경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이 1983년말까지 서독에 배치될것이라고 말했다.

브란츠총사령관은 이날 3백명이 참가한 서독군고위장교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퍼싱Ⅱ미사일 1백8기의 서독배치와 크루즈미사일 4백64基를 서독·영국·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등 유럽5개국에 배치키로한 1979년의 나토결정이 향후 1년간 정치적 논란의 초점이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反核평화주의자들은 이 연례서독군고위장교회의를 방해하기위해 軍장교들과 경찰에게 돌멩이를 뿌리는등 소란을 피웠다.

이스라엘 逐出計劃 리비아·이란도抛棄

【유엔본부 (뉴욕) AP=聯】리비아와 이란은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대표단을 축출하려던 계획을포기했다고 유엔소식통들이 19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알제리가 이들 양국에대해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 대표단 자격심사를 위한 표결을 요구하지말도록 설득、이스라엘축출계획을 포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했다고 말했다.

中·蘇회담進行사실 蘇언론들 報道시작

【모스크바 AP=聯】蘇聯은 19일 관영언론들을 통해 중공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시작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관영타스통신과 소련TV방송들은 이날밤 부외상 레오니드·일리체프가 현재 北京에 머물면서 中蘇양국관계의 불화를 씻기위한 회담을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外國軍 연내 撤收케하자"
제마엘·레이건會談

【워싱턴AP UPI=聯】레이건 미대통령은 19일 레바논에주둔한 이스라엘및 시리아軍등 모든 외국군의 조속한철수를 촉구하는한편 레바논에 파견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달라는 아민·제마엘 레바논 대통령의 제의를『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을 처음방문한 제마엘대통령과 2시간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레바논주둔 외국군을 금년말까지 철수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고 미국관리들이 말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公務員 3천百42명 징계
上半期、내무부 2천여명 으뜸

금년상반기동안에 懲戒된 공무원의수는 모두 3천1백42명으로 이중 1천5백52명이 옷을 벗은것으로밝혀졌다.

총무처가 20일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징계받은 공무원의 징계내용은 ▲罷免2백64명▲解任97명▲停職1백1명▲減俸7백75명▲견책1천5백52명▲영창2백62명▲근신90명으로 돼있고 소속部處별로는 내무부 2천1백64명 (경찰1천2백49명포함) 서울시2백31명 문교부2백20명의 순이다.

또 금년중에 명예퇴직한 공무원수는 모두 7백12명으로 職階별로는▲국가공무원 1백25명▲지방공무원3백42명▲교육공무원이 2천4백45명이며 최근5년간 퇴직한 공무원의수는 모두 3만48명으로 밝혀졌다.

와세다大、金총리에 名譽법학博士 학위

【東京=聯】金相浹국무총리는 20일 日本와세다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올해 창립1백주년을 맞은 와세다대학은 金총리를 비롯해서 세계각국의 5개자매대학 전직과 현직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金총리와함께 명예학위를 수여받은 5개국 대학총장은 西獨 본대학의 한스·제이·크루멜전총장、프랑스 파리대학의 피에르·타바로니총장 그리고 소련 모스크바대학의 A·A·로구노프총장、말레이지아 말라야대학 운구·압둘·아지즈 부학장등이다.

"秋穀價 10%引上을"

民正 일부議員 收買量도 8백50만섬

民正黨은 20일상오 中央黨舍에서 黨정책위의 經科委、農水産委합동회의를 열고 금년도 秋穀수매가및 수매량책정문제와 오는22일에 열리는 국회농수산 경과위연석회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李鍾贊총무는『금년도 秋穀수매가는 물가상승률、농가의생산비、정부재정형편등을 고려、한자리숫자내에서 가급적 높은인상률에 收買量도 최대한늘리도록 하는것이 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은『최소한 10%인상에 8백50만섬은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對比 7%인상과 7백여만섬의 수매량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獨立紀念館 건립費 6백억
12월初에 1차公聽會 열어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는 독립기념관의 총건평을 1만4천평으로 잡고 3백50억원을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위원장 安椿生)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의하면 건축비로 평당2백50만원씩 3백50억원、야외전시、기념비、부대비로 1백50억원、조경비로 약1백억원등 6백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조경비1백억원은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라는것.

기념관건립추진위는 오는 12월초 제1차 공청회를열어 기념관명칭、전시방법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고、내년3월에 제2차 공청회를 통해 기본설계모형과 도안을 전시한후 내년11월 기초공사에들어가도록 일정을 짜놓고 있다.

한편 지난15일까지 접수된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은 2백31억7천3백34만6천원(신문사1백59억4천1백49만·방송사71억8천9백92만·사무처4천1백93만원)으로 집계됐다.

美「地·空협동戰略」마련

西유럽 被侵땐 蘇領까지反擊

【워싱턴UPI=聯】미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이 서유럽을 공격할 경우 적지에 대해 전격적인 군사반격을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에어랜드(空輸着陸)전투 1982~86」을 채택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미군『야전지침100-5』에 수록된 새에어랜드전투전략은 지난76년 수립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전략개념과 대체되는데 L·D·홀더중령등2명의 美군사전문가들은『군사평론』지를 통해 이전략이 2차대전이후의 어떠한 美軍전략보다도 공중및 지상작전의 조화를 강조한것으로 적이 대응태세를갖추기 이전에 적의 방어망을 분쇄하기 위해 적의 후방깊숙한 지역에서까지 전투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에 따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단위부대지휘관들은 미군사상처음으로 소련까지 깊숙이 신속한 반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같은 에어랜드전투전략은 소련이 유럽에서의 전격작전을 계획하고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는 美국방성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우려를 씻어줄것으로 보인다.

英國의 군사전문가인 크리스터퍼·도너리씨는 최근 한 보고서를통해 소련이 나토軍지휘관들이 회원국정부로부터 核반격권한을 부여받기 3~4일전에 서유럽에서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표를세우고있다고 지적하고 蘇聯軍최고사령부는 소련군탱크가 나토방위선을 돌파、단거리核무기배치지역을 파괴하도록 유럽침공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 말했었다.

對아프간叛軍작전 蘇실패 4백명戰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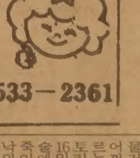
【이슬라마바드AP UPI=聯】아프가니스탄주둔 소련군은 최근 회교도반군의 카불공격위협을 사전봉쇄하기위해 카불북쪽지역의 반군거점에 대한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팜즈세르 계곡전투에서 4백명이상이 사망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한 목격자가 19일 전했다.

회교반군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에 목적을둔 프랑스구호기관대표 장·조스·피그씨는 이지역의 민간인들이소련군의 집중포격으로 다수사망했음에도불구하고반군의희생은 비교적 적었다고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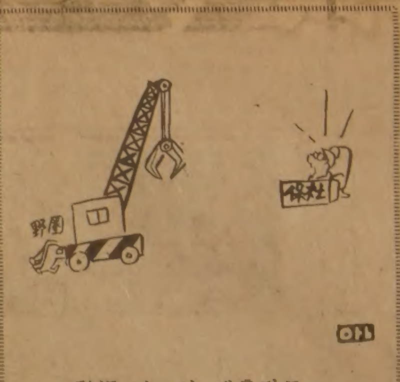
주간女性 구독신청 533·2361

◇폴란드人 20명 "자유亡命" 蘇製 안토노프기를타고 19일저녁 폴란드를 탈출한 20명의 폴란드人들이 말뫼교외 스투루프공항에 도착한후 스웨덴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경찰차량에 짐을 옮기고있다. 【말뫼 (스웨덴) 19일AP=聯】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533-2361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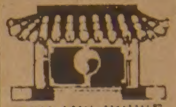
辭退 권고안 제출검토…

地平線

『20세기 여자된 여러분/썩은 습관 다 버리고 해방시대에/오히려 해방적이 멀어 하여도/불편함을무릅쓰고 나아갑시다』— 20년대말에서 30년대초에 유행했던「여성해방가」가 꽤 전투적인데놀랄만한 일이다.『眼盲한 우리 부모 여러분/남자와여자를 구별하여서/남자를 낳으면 기뻐서 웃고/여자를 낳으면 독아앉네』▼「여성해방가」는 완고한 부모를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때는 3·1운동의 함성이 꺼지지도 거의 10년이 흐른뒤다. 말하자면「여성해방가」는 개화기 여성들의「독립선언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그래도 호랑이 담배피우던시절의 얘기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가씨들이 남자처럼 우락부락한 근육을 만드느라고 법석이라고 지난8월 보도됐었다. 남녀유별이 아니라「무별」의 시대다. ▼孔子가 여자를 아이 취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아이와 여자는 다루기 어렵다』는게 모욕적인 말이 그것이다.『가까이하면 넘보고、멀리하면 원망한다』는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땅에서도 여성독립선언이 있은지 벌써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여성이 중요한 파트너가되는 핵가족의 시대요、여자도 마음만 먹으면 돈벌이를 하는 산업화시대다. ▼결혼1주일에 집을 떠난 남편을 37년동안 기다린 끝에 이제는 55세의 주름진 얼굴로 소망을 이뤘다는 사연이 지난 9일알려졌다. 이제는 남의 남편이 돼서 충북땅에서 찾아온 신랑도 예순을 앞둔 59세였다한다. 18세의 나어린 새댁이 평생을 걸었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지나간 세대의 러브·스토리다.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 서울과 原城군에서는 술에다 노름이 심한 남편을 죽인 40대와 30대의 두 아낙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우리 교포 부부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여기에서는 아내가 권총으로 남편을 쏴 죽였다. 게다가 이번엔 어머니를 모시자는 남편과 다툰끝에 30세의 둘째며느리가 자살한 사건까지 터졌다. ▼30세의 며느리가 독을 마신 사연을 낱낱이 뭐라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그 사실만이라면 부모의 세대나、젊은 세대나 다같이 충격을 받지않을수 없다. 전통과 새로운 현실사이에서 진통하고있는 가정문제에 우리답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위해 모두가 참여 해야 할 때다. 우리가정의 갈등과 노인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번사건은 알려주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바르고 건전한 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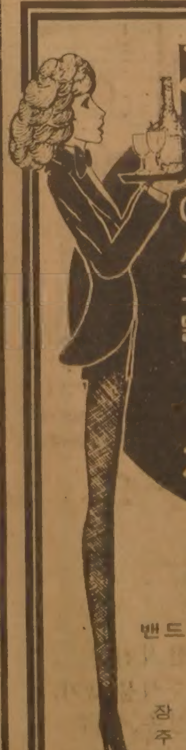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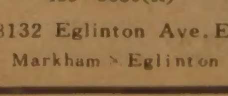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회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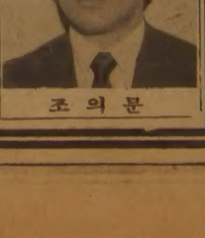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준신
(R) (416)633 7892 (David Cha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 PRIX CENTURY, A6000, FIRE 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癌이 무너진다

世界의 抗癌전선… 本社기자 現地리포트

"統計가 최대武器"

하버드大學정치학교수 에즈라·포겔은 1978년『일본넘버·원』(Japan as No. 1)이라는 책을써 일약 백만장자가됐다. 敗戰의 폐허로부터 불과 30년만에 어떻게 세계제2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는가를 추적하여 일본인들의 장점을 분석한 것인데 미국·일본등에서 수년간 베스트·셀러가 됐던것이다.

「日本넘버·원」은 日本人들이부지런하다는것과 조직을 통한 능률화를 이루는 지혜를 갖고있다는 것이 主內容.

日人들의 조직에 복종하는 습성은 과연 놀라울 정도다. 어떤 상부기관에서 「하지말란」하면죽어도 안하고 「하란」하면 목숨을 걸고 해내는 속성이 있다.

자동차파킹장의 질서에서도 미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차이를 엿볼수있다. 일인들은 「들어가지못함」(No enter)이라는 푯말만 붙어있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않는다.

미국인들도 물론 No enter표지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파킹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일본파킹장은 「들어가지못함」이라는 푯말만 덩그렇게 붙어 있을뿐 다른 장치가 없고 미국파킹장은 푯말밑에 도끼이빨같은 철치(鐵齒)를 박아놓았다.

잘못하다가 자동차를 No enter쪽으로 몰았다가는 타이어 4짝이 걸레조각이 돼버린다.

미국인들은 공통질서개념 이외에 자기스스로의 질서감각같은것을 갖고있다. 이런 자기질서감각이 가끔 공동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나오곤한다. 자동차파킹장에 No enter란 푯말만 있고 그 쇠꼬챙이가 없으면 이런 푯말쯤이야 쉽게 무시할사람이 많은 것이다.

세계최초의 암전문병원인 뉴욕 암병원을 세웠던 젊은 外科醫 제임즈·심도 이런 공통질서의 도전자였던것. 그는 사회가 암환자를 저주하고 있을때 이들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세계선봉을 걷는 미국암의학계는 이런자연발생적인 용기있는자들에의해 발전돼왔고 또지금도그런식으로 발전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엘리트로 구성된 강력한 암학계 조직이 먼저서고 이 조직의 눈부신 對癌활동이 진행돼온 것이다.

에즈라·포겔은 『일본엘리트는 인민의 존경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을만큼 깨끗하고 부지런하며 헌신적』이라고 적고있다. 조직엘리트를 따르는 국민들도 조직엘리트를 그만큼 신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일본의학계는 1950년대末쯤 암정복을위한 3가지목표를 뚜렷이 세웠다.

첫째는 병원능력의 향상, 둘째는 조기발견, 세째는 예방.

병원능력의 향상문제는 곳곳에 암전문병원을 세우고 우수한 의학도를 미국에 유학보내고, 실험시설을 늘리는것등으로 문제에접근해갔고, 조기발견은 순회차검진제도의 정립·병원의 집단검진부설치등으로, 그리고 예방문제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구석구석까지의 홍보활동으로 뚫어갔다.

大阪府立成人病센터

오오사까(大阪)府立成人病센터의 설계도도 이런 日本의학계의 암정복을위한 3대의지의한결정.

오오사까府立成人病센터는일본경제가 한국동란 여파로급성장하던 1957년에 설립됐다. 당시는 전국에 만연하던 폐병치료를 목적으로 세워졌던것.

그해6월 오오사까府정부는 성인병센터건설을 위한 사무국을설립하고『건강한오오사까스』의기치아래 순환기 전문병원시설을들여오기 시작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결핵퇴치운동이 크게 일고있던 때였으며 오오사까府도日本제2의도시로서면모를 세우려했던 것이다. 순회X線검진차가오오사까성인병센터에 배치되고 의료전문기술자들도 급격히 양성했다.

성인병센터가암을통제영역에넣은것은 설립3년후인1961년. 병원조사부장 후지모또(藤本伊三郞)는 오오사까成人病센터가세계최초로 遠隔조작식 X線TV장치를 설치한 곳이라고 자랑했다.

지금은 순회검진차등에도 환자가 방사선장치실에 누워있으면 X線기사가 통제실에서 TV스크린을 들여다보며 적절한 곳을 사진찍도록 돼있지만 1961년까지는 이런 시설이 세계어느곳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東北大學이나 北海島大學에서도 이 원격조정TV시스팀을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고 서로 주장하고있긴하지만 이 오오사까府立 성인병센터는 적어도 이를 환자검진용으로 실용화 한것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오오사까府立성인병센터는오오사까市한중심지쯤에있다. 지금은 깡그리 암환자로 차있는 병원침대 5백개의 웅장한 건물이다. 병원옆쪽에 병원크기의 실험실이 붙어 오오사까성인병센터는어느면모로봐도 국제수준급의 암센터로 인정될직하다.

지금의 우람한 건물은 1971년 설계에 착수하여 76년에 완성된것.

『50년대末과 60년대를통해 폐결핵이 통제되기 시작했읍니다. 아울러 암이 의학계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던것입니다. 府정부는이때 成人病센터의 운영방향을 암쪽으로 돌렸던거죠.』

오오사까지역에는오오사까大부속병원,국립오오사까병원, 오오사까府立성인병센터등病床5백개정도를가진대형병원이5개쯤있다. 그러나 순전히암환자만 받는곳은 이 오오사까府立成人病센터하나뿐. 全日本에서 3개뿐인 세포진(Cytology) 검사기술자학교도 바로 이 성인병센터에 부설돼있다.

오오사까府立成人病센터의가장 큰 특징은 조사부에 쌓여있는 오오사까지역의 癌조사표.

병원운영이 對암투쟁으로 돌려지면서부터 암환자조사사업을 벌여 지금은 오오사까지역주민의완벽한 癌자료를 갖게된것이다.

현재 조사부장직을 맡고있는후지모또(藤本伊三郞)박사는 日本은 암정복사업을 대대적으로펴기 시작하면서 우선 암환자통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62년 癌환자 등록법을 府조례로 만들어 府내 각병원, 행정관서, 보건소등에서 암환자를 접수하는대로즉각오오사까府立병원으로 통보하게 했으며 부립병원은 이 자료를 갖고 암환자의발생연도별, 지역별, 종류별분류를 해 암환자의 완전치유및 사망시까지 철저한 추적을한다.

오오사까市를비롯, 미시마(三島) 센수(泉州) 사까이(堺市)등 12개지역에서 보내지는 암환자의 연령, 성별, 암의 종류, 치료방법, 생존연수, 사망일자등이 상세히 적힌카드가 오오사까府立성인병센터에 쌓여있다.

병원이 내놓은한통계를 보면오오사까府내에는 1963년 현재 암환자 9천2백1명이 있었으며 1978년에는 1만4천55명으로 늘었다.

이를 癌종류별로 보면 위암은 1966년 현재 인구 10만당 4·6명에서 1978년에는 인구 10만당 4·1명으로 줄었고 폐암은 1966년 현재 인구 10만당 9·5명에서 1978년 현재 인구10만당 18·4명으로 늘었다.

日本 암의학계가 본격적인 對癌캠페인을 벌일수 있는것은 바로 이런 과학적 자료에 크게 힘입고 있는것.

오오사까成人病센터와거의같은 시기에 日本전역에 9개의 縣立 또는 府立 성인병센터가 섰고 암환자추이통계도 따라서 1960년중반부터는 세밀화됐다.

후지모또박사는『정확한 통계없이는 아무 사업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각지역단위의 癌조사사업이 전문화되면서부터 日本에는 아마도 세계유일의 암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日本癌疫學會와 다이와(大和)헬드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이 암지도는 日本의 각지역별 암환자 분포도가 자세히 그려져있다.

예를 들어 위암은 九州해안지대, 四國남쪽지역등이 가장 많고 肝암은 동경지역이 가장 높은것등이 세밀히 그려져있다.

『日本암 이환추세는 1970년대末을 깃점으로 위암이 수그러지고 肺암이 느는것이 확실해지고 있읍니다. 日本암학계는 60년대이후 줄기차게 벌인 胃·자궁암제압운동에서 폐암제압으로 활동영역을 바꾸고 있읍니다』

오오사까의 경우 肺암은 1982년기준으로 지난 10년통계에의하면 남자는 거의 6배, 여자는 4배가 올랐다.

후지모또박사는 禁煙운동으로 결론을 끌어갔다. 『공해문제가 극심하던 1960년대중반, 오오사까市중심부는 눈을 제대로 뜰수 없을정도로 매연이 심했어요. 公害방지법이 제정되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인결과 오늘날은 거리공기가 깨끗해졌어요. 肺암의 원인으로는 담배가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담배수입은 정부의주요稅源이니까 담배없애자는 말은 할수없고 값을 엄청나게 올려야한다고 후지모또는 말했다. 담배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稅收도 늘고 국민건강도 향상된다는 주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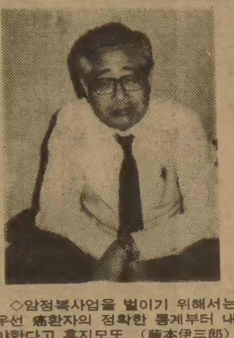
오오사까는한국교포가일본에서 제일많이사는곳이기도하다. 오오사까市인구 2백70만중 20만정도가 한국인이다.

【오오사까(大阪)=鄭逸和 기자】

전국癌地圖·정확한 資料갖춰

모든機關은 접수된정보 病院에 통보

地域주민들 病歷을 손바닥보듯 파악



◇암정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선 癌환자의 정확한 통계부터 내야한다고 후지모또 (藤本伊三郞) 오오사까成人病센터 조사부장은 말했다。

◇오오사까府내의 완벽한 癌환자조사표를 갖고있는 오오사까府立成人病센터。

한국일보詩壇

〈만가〉

무너진 가슴을 안고

—고 정 병욱님의 영앞에—

구름재 박 병순

그 무렵 그 또래엔 가장 실력가 그였지만,
박사 학위 탐내잖던 양심스런 학잘러니,
연구에 정진을 거듭하다가 예순 못 넘고 가는가!

스승을 위하는 맘 유달리 깍듯하여
「가람문선」 엮어 「시조사전」 한갑에 넘고,
스승님 부음을 듣고 달려와 함께 욱더니…。

벗을 유독 사랑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시조 또한 사랑하여 알고 모름 상관없이,
온 세상 휘황찬란히 펼쳐 보게 하였네。

한동안 안 보여서 웬일인가 하였다가,
궁금해 다시 물으니 입원했다 하였기에,
예사로 여겼던 것이 이게 무슨 벼락이오?

가람 가셔 노산 가셔 당신마저 가오시니,
해와 달 어두웁고 별빛마저 섣기옵기,
무너진 가슴을 안고 슬픈 노래 뿌리오。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3>

아데나워 首相

敗戰국민을 信念과 忍耐로 이끌어

표정없는 얼굴에 재치·유머…政敵엔 냉엄

콘라드·아데나워는 49년 73살때 초대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에 선출되었다.

전쟁의 폐허속에 묻힌 독일에서 아데나워는 하나의 커다란 城이었다.

아데나워는 독일국민에게 신념과 인내를 지닌 老政客으로 부각되었다.

패배의 굴욕과 혼란의 시기에 냉철한 이성과 끈기와 위엄을 가지고 독일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가 독일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마치 국민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정적들에게는 냉엄했다. 아데나워는 상대방의 약점을 재빨리 파악하여 약점의 급소를 찌르는 명수였다.

아데나워는 논리와 이성이라는 차가운 강철칼 외에도 번뜩이는 재치와 풍부한 유머를 지녔었다.

초대수상 취임연설때의 일이다. 공산당소속의 한의원이 아데나워의 취임사중 소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그는 아데나워의 소련에 대한 언급이 소련전문가에 의해 기초된게 분명하다고 대들었다.

잠깐 생각에 잠겼던 아데나워는 『당신은 더 질투가 많은 사람이군. 나보다 더 소련에대해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니 말이야』라고 응수, 더이상의 말문을 막아 버렸다.

아데나워는『허리굽혀 절을 할지언정 결코 부러지진않는다』라고 연합국의 통치를 받고있는 독일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내가 아데나워를 처음 만난것은 53년 워싱턴의 앤드루즈 공항에서였다.

덜레스 당시 국무장관과 내가 아이젠하워대통령과 獨美정상회담차 訪美하는 그를 배웅하러 공항에 나갔다.

어둠침침하고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비행기트랩을 내려오는 아데나워를 보고 나는 그의 우람한체구와 스핑크스같은 얼굴에 우선 놀랐다.

6피트 2인치(1m86㎝)의 장신에 꼿꼿한 몸가짐과 네모반듯한 그의 얼굴이 나를 압도해 버렸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아데나워는 달랐다.

아데나워 얼굴표정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읽어낼수가 없었다.

정치를 할때나 국제협상에 임했을때, 상대방의 얼굴표정에서 그의 생각이나 감정을 포착한다는것은 매우 큰 도움이된다.

아데나워의 표정은 그저 조용하고 거의 금욕주의자같은 무표정에 가까왔다.

그의 얼굴은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아데나워의 訪美는 두가지 이유에서 커다란의미를 지니고있었다.

아데나워는 1차대전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초의 독일수상이었다.

아데나워가 미국에서 받을 공식 비공식 환대는 미국국민이 나치와 독일에 대해 갖고있는 악감정을 씻어낼수있는가를 가름해줄 시금석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對獨정책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었다.

아데나워와 아이젠하워의 정식회담이 미국의 對獨정책에 분수령이 될 판국이었다.

나는 아데나워의 환영사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독일이 혁혁한 공을 세웠음을 첫머리에서 상기시켰다.

나는 아데나워에게 그가 미국에서 묵게될 영빈관 바로 몇발짝앞에 미국독립전쟁에 참전한 프러시아군 장교인 프레데릭·빌헬름·폰·스트벤남작 동상이 서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데나워는 내가 최근 몇십년동안의 원한에찬 獨美관계를 언급치않고 프레데릭남작의 얘기를 말해준데 대해 고마와했다.

아데나워는 뒤에 그의 자서전에서 나의환영사에 매우 감동했었다고 솔직히 기술하기도 했다. 아데나워는 그뒤에 여섯번이나 미국을 공식방문했다.

아데나워는 자신이지닌 이상을 정치적 현실에 조화시킬줄아는 드문 정치가중 한사람이었다.

나는 특별한 이상주의목표를 갖지못한채 단지 유능한 기술자같은 정치가및 훌륭한 이상적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의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대안도 갖고있지못한 정치가들을 접할기회가 많이 있었다.

아데나워는 자신의 심오한 이상주의적 확신을 정치활동을통해 실현시킬수있는 연금사와 같은 정치가였다.

아데나워는 비스마르크이래 독일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

아데나워는 가끔 8~9세기에 유럽통일을 이룩했던 샤르마니에 大帝에 비유되기도 한다.

두사람이 모두 거구였고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위대한 사상가라기 보다는 행동주의자 였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두사람 모두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실현시킬수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진인물이라는점도비슷했다.

아데나워는 드골을 몹시 존경했다. 그의 드골존경은 거의 영웅숭배에 가까웠다.

아데나워는 존경하는 인물을 지적하라면 서슴지 않고 드골을 들었다.

하지만 두사람은 여러면에서 달랐다. 드골이 내적성찰과 창조적 사고를 지닌 思考형인간이라면 아데나워는 약간은 비문화적 성향을 지닌 行動型 인간이었다.

아데나워가 얼굴표정과는 달리 유머가 풍부하다는 점은 처칠경과 비슷했다.

그러나 처칠은 뛰어난 文筆家였지만 아데나워는 글재주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아데나워는 은퇴후에 집필한 자서전에 대해 항상 걱정하곤 했다.

아데나워는 전후 서유럽의 정세를 새로 개편한 장본인 이었다. 전후 유럽은 유럽내부의 분열보다는 유럽외적 세력인 소련에의해 더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아데나워는 유럽공동시장(EEC)의 전신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결성을 주도해 유럽의 단결을 호소했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5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다.

63년에는 평소 숙원이던 프랑스와의 우호조약체결에 성공, 양국간의 묵은 원한을 해소시켰다. 독일은 그가 집권한 14년동안에 국제적 불법자라는 오명을 씻고 믿음직한 자유의 보루로 탈바꿈했다.

국가지도자들이 서로 우정을 갖는다는것은 기대하기어렵다.

국가지도자들간의 만남이란 대개의 경우가 큰사건의 와중에서 이뤄질뿐만아니라 엄격한 의전절차와 보좌관·통역등 인의장막에싸여서로간에 진실한 대화가 힘들기 때문일것이다.

항상 지도자들의 만남을 짓누르고있는 국가이익이란 유혈도 지도자들간의 우정형성을 어렵게 만들고있다.

나는 정치생활중 셀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만났으나 개인적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몇명뿐이다. 아데나워는 내게 몇안되는 경우중의 한사람이었다.

63년 그가 수상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사이의 우정은 지속되었다. 아데나워는 66년 기민당 당수직에서마저 사임, 공직생활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나는 그가 죽기얼마전인 67년 그를 만났었다. 피곤에지쳐 야윈모습과 눈에띄게 굽은 허리는 나를 놀라게했다. 하지만 91살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신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빈틈이없었다.

◇63년 프랑스를 방문한 아데나워가 파리공항에서 드골의 영접을 받고있다. 드골이 의전상의관례를 무시하고 공항에 직접 출영나갈만큼 아데나워와 드골은 친한 사이였다.

對照的성격에도 드골을 尊敬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사 BAND - 기타 : 신상철 / 올겐 : 허효상 / 드럼 : 김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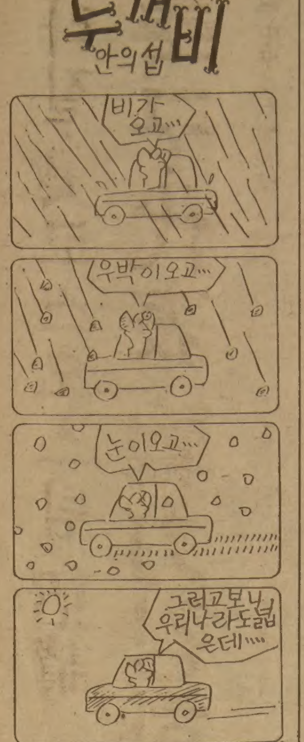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받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千3百m高地 지키는 4人의 警官

전국治安의 심장…경찰通信중계소

오늘 警察의날

1초의사고도 容納안해
家族과 떨어져 흡사 승려생활

【○○山경찰통신중계소=金宗來기자】 경찰통신망의 핵을 이루는 ○○山 해발 1천3백m에 위치한 경찰통신중계소。서울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60㎞、다시 비탈길을 구불구불 돌아 50㎞를 가야 나오는 깊은 산속이다。그늘진 이 중계소에서 李獻周경장(47)·韓光林순경(39)·崔鍾元순경(31)·趙鍾壽경장(36)등 경찰관 4명과 고용원 2명이 21일이「경찰의날」인줄도 까맣게 잊은 채 분초의 지체도 없이 익숙한 솜씨로 전국의 치안통신망을 연결해주고 있었다。

단 1초라도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실수를 해 통신이 두절되면 전국의 치안은 그대로 마비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일을 염두에둘 겨를조차 없는것이다。

31세의 신혼에서 53세의 장년까지인 이들은 산속의 승려같이 외지게 살고있지만 하는 일은 서울의 시민생활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이들의 임무는 전국에흩어져 있는 수십개의 크고 작은 중계소와 치안본부간의 사건사고·작전·고속도로 정체등 각종 상황에 관한 통신연락의 중계를 맡는것。

처음 이들을 만난순간 「먼지」냄새가 안났다。

인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출퇴근은 엄두도못내고 3명씩 2개조로 일주일씩 교대근무를하고 1년이면 6개월은 가족과떨어져 지내니 속세의때가 몸에붙을겨를이없겠다。

그러나 공기좋고 조용해서 좋은면만 있는것도 아니다。고지대라서 처음 몇달은 귀가 멍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두통으로 고생한다。날씨도 고양이 눈빛처럼 왔다갔다한다。햇볕이 쨍쨍비치다가도 소나기가 퍼붓고 연중 9개월은 안개가 자욱하다。서울과는 기온차가 섭씨 10도、산밑 마을보다도 7、8도가 더 내려간다。

겨울에강추위가휘몰아칠때면섭씨영하38도까지내려가는시베리아의 혹한이다。

10월하순이면 눈이 내리고 이눈은 4월까지쌓여있다。폭설이 쏟아질땐 강설량이 1m50㎝로 일주일이상 교통이 막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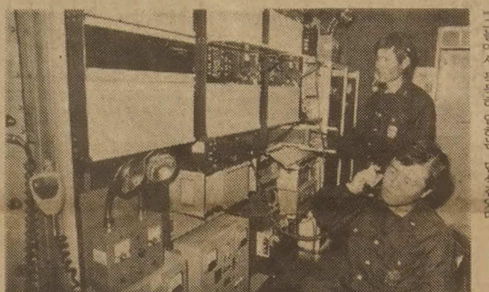
이럴땐 식량보급이 끊어지는 건 말할것도 없고 금요일 상오10시에있는 근무교대도 못한다。눈을 녹여 식수로 쓰는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가슴이 막힌다。

3백65일이 지나도 이들을 찾아 얼씬하는 사람없지만 등산객의 부주의로산불이 나는게 속세와의 접촉이 된다。수십 ㎞떨어진 관할경찰서에 연락을 해줘야 하기 때문。

이런 환경속에서도 11년동안 단 1건의 통신사고를 내지않고 근무했다。李獻周경장은『직원들이 중계소만 돌아다녀 해당직종 근무 경력이 3~8년」이라며『장비가 고장나면 집에가서 고쳐오기도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오거나 서적을 통해 연구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홀아비들만 살다보니 가족적인 분위기가 됐다。취사반장격은 崔순경이지만 서로 미루지는 않는다。崔순경은 근무때는『산사의 스님이된 기분』이라고 웃는다。

이중계소의 최대 경사는 직원이 진급해나가는 것。지난9월 金永植전소장은 경위승진시험에 합격、며칠전 平澤경찰서로 영전해갔다。李경장도 8년을 중계소만 돌다 80년 특진됐다。李경장은『중계소근무가 고생스럽기했지만 특진되던 날 이고생이 눈녹듯」하더라고 말하더니 느닷없이『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이 많다는걸 잊지마십시오』라고 기자의 손을 덥석잡았다。


◇○○山중계소 직원들은 1년중 절반은 가족과떨어져 살면서 1초의 착오도없이 치안통신망을 연결하는일에 여념이없다。【金龍逸기자찍음】

퇴학앙심 級友 넷 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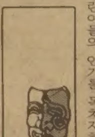
전문대생 令狀

【群山】群山경찰서는 20일 학교에서 퇴학당한데 앙심을 품고 급우 4명을 칼로 찌른 S전문대 2년 신모군(20·沃溝郡미성읍)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16일 학생 33명이 5천원씩을 각출、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견학갔을때 입장료가 부족되자 자비로 입장권2매를 구입했는데 학교에 돌아와 학급반장인 서홍석군(26)에게 입장권값 1천2백원을 반환해줄것을 요구、들어주지 않자 반장인 서군을 교실에서 구타했다는것。

이때 교실에있던 최정규군(27)등 학생6명이 폭력배와함께 공부할수없다고 수업을 거부、이사실을안 학교당국이 신군을퇴학시키자 지난17일 하오 4시30분께 술을마시고 급우 서홍석·최정규·윤호석(27)·두영남씨(29)등 4명을 흉기로찔러 전치 1주에서 6주까지의 상처를 입혔다는것이다。【肥】

「馬夫」 서울市警 기마대 尹漢善경사



빛바랜 人氣…"웃사람들 存廢論은 야속"

尹漢善경사(46·사진)의 몸에선 안된얘기지만 말똥냄새가 난다。두툼한 콧등하며 수더분한 인상도「馬夫」를 연상케한다。15년을 서울시경기마대에 근무하며 말등에서 살았으니 당연한 일인지도모른다。

21일 경찰의 날인데도 그는 정말 자기 생일도모르는 마부처럼 말속에 파묻혀 있었다。정성스레 갈기를 쓰다듬는 그의 모습이 예사로 보이질 않았다。

요새야 웬만한 자동차만큼이나 힘이좋은 오토바이를탄 기동경찰대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는 세상이지만、그의 어린 시절은 기마경찰이 하나의 멋진 동경이었다。

어린시절 학교를 오가며 보았던 鍾路區壽松洞의 옛 기마대광경은 지금도 고이간직한 추억이다。윤기나는 갈기와 실팍한 근육을 자랑하는 말과 이 영물을 다루는 기마경찰관—그것을 그린 한폭의 멋진 그림이나 활동사진장면이었다고 기억해낸다。

그래서 지난60년 경찰에 들어갔고 꿈을 좇아 62년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다。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기마대를「알아주었다」。요인경호、군중진압、행사장질서유지에 없어선 안될 존재。기동력의 총아요 권위의 상징이었다。기마경찰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것이 지난 75년 각도의 기마대가 없어지고 서울시경기마대도 명맥만 유지한채 城東區聖水洞 외진곳으로 밀려났다。이때부터 시내에서 기마경찰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볼수없게됐다。

그러나 尹경사는 요즘도 기마대를 이끌고 어린이대공원과 뚝섬유원지를 순찰한다。인기의명맥이 조금은 남았다 할까。어린이들의 뜻에 따라 카메라앞에 포즈를 취해주며 기마경찰을 동경하던 어린시절을 회상한다。

서울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린 25일간 尹경사는 정말 신이났다。매일 10기가 출동、도보경찰관 5백명의몫을 해내고 시원한 구경거리도 돼줬다。

尹경사는 요즘 기마경찰의 존폐를 들먹이는 웃사람들이 야속하기만하다。게다가 젊은 경찰관이 기마대에 오면 3년이 멀다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것도 가슴아프다。

말한필을 사육하는데 드는비용은 하루 1천4백30원인데비해 기마로서의 수명은 10년이나 되니 이처럼 값싼 장비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장비현대화만 따질일이 아닙니다。영국왕궁과 외국경찰에서 기마대를 유지하고있는 이유를한번 음미해봅시다』。【方旼俊기자】

교복 자유화 벌써 奢侈化

實施하기도전에 「참뜻」밟아

◇진열장에 걸려있는 여학생용 주니어 패션。유명상표가 붙은 이옷들로 정장하려면 10~15만원이 든다。이처럼 비싼값때문에 아직은 매기가없고 물건만 쏟아져나와있다。

여고생 正裝에 15萬원까지

유명業者 패션쇼벌이며 膳物공세도

「중·고교 교복자율화방침」이후 등장하기시작한 여학생들의 주니어 패션이 탈선 반보 직전이다。

상술에 민감한 유명메이커들이 「고급품」을 개발해놓고 「사치화」를 부채질 하고 있고 몰지각한 일부학부모들이 별 생각없이 이들의 상술에 말려들고 있어 모처럼 얻은 자유화의 물결을 잘못 끌고갈 공산이 크다。

여고생을 둔 학부모가 딸을 정장(正裝) 시키려면 줄잡아 10만원、코트까지 합치면 13~15만원이 드는실정。

이같은 계산은 전국규모의 5·6개유명메이커들이 시중에내놓은 주니어패션을 기준삼은것으로 종전의 교복값이 3만원내외였던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것이어서 평상복으로 만족하려는 서민층학생이나 학부모를 자극하는 현상이 되고있다。

서울、부산을 비롯한 대도시학교에서 지난9월부터 교복자유화를 시범실시하자 일부 메이커들이 백화점에까지 진출、여고생을 상대로한 패션쇼를 여는가하면 간부학생들에게 접근、주니어패션복을 입어보라고 선물하는 선심공세까지 펴고있다。

이에대해 일선교사와 학부모들은 개성을 살리고 활동적이며 검소한 청소년생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교복자율화가 일부 대기업의 사치성 고급품 선전과 과당경쟁등으로 실시 초기부터 참뜻을 잃고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특히 교복자율화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완전실시를 하지못하고 60~70%만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단 자율화를 했다가 다시 유니폼으로 돌아간 선례까지 있어 이시책이 순탄하게 정착하려면 학생·학부모의 마음가짐은 물론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영리위주의 상술을 일단 자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고생이 입을 웃저고리가 웬만한 것은 3만원、치마는 3만5천원선、브라우스 2만여원、여기다 4만5천원정도하는 반코트까지 갖춰 입으려면 13만여원이 들며 조금나은 것을 고르면 15만원이 넘는다。

교복 자율화 시범학교인서울 昌德여고의 金淳東교감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학생용 옷시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내놓은 상품들이 거의가 정장(正裝)일변도로 한벌에 10만원이넘는것이 많았다며 이들 업체들이 값싼 학생용 의상을 많이 개발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달초 연사흘 자유복착용을 해왔던 서울 K여고의경우 첫날보다 이튿、사흘째로 접어들수록 옷들이 화려하고사치해졌으며 이른바 유명메이커 제품을 입은 학생이 늘어난것으로 지적됐었다。

이학교 2학년 朴美慶양은 『이대로 가다가는 옷이많은 학생과 그렇지못한 동료들의 교우관계마저 서먹해질까 두렵다』고 말하고있다。

여기에다 이달들어 교복자율화가 부분적으로 시범시행되면서 중고생용 전문주니어패션간판을 내건 5~6개의 유명메이커들이 자극적·선정적광고로 남녀학생들을 유혹까지하고있다。

유명메이커의 값비싼 주니어패션보다 값싸고 실용적인 자유복을 살수도있다。

서울K여고의 李모양은 백화점이나 전문의상점을 돌며 맘에드는 색깔과디자인을 보아두었다가 남대문이나 평화시장에가면 반드시 비슷한제품이있고 유명제품의 3분의1값이면 살수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고급패션업계의 선정적인 광고공세에 멋내기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가 의문이며 여학생들은 일단「유행」이되면 가정의 형편보다 남에게 뒤지기싫어 따라가는 성향이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의상연구가 鄭喜慶씨(43·여·월간의상편집인)는 청소년들의 옷은 입기편하고 튼튼하고 싼것이어야하는데 요즘나오는 주니어패션은 가격이 너무비싸다고 말하고 옷감은 빨래가 어려운 순모보다 TC를 섞은 목면을 많이 사용、간편하게 빨아입을수 있도록 할것을 권장했다。

또 디자이너 文慶熙씨(51·여·국제복장학원)도 굳이 순모를 입으려면 털실을사다가 손수 짜서입고지금의교복을 약간손질하여 자유복으로 활용하는것도 여학생들이 갖춰야할 생활의 지혜일것이라고 지적했다。

柳寬順열사 判決文원본 찾았다

法務部 독립선언·光州학생운동 裁判기록도

柳寬順열사의 만세독립사건、孫秉熙등 민족대표의 독립선언、光州학생운동등 주요 항일투쟁사건에대한 판결문 원본과 재판기록등이 발견됐다。

법무부는 20일 앞으로 건립될 독립기념관에 전시할 항일투쟁사 자료수집결과 1차로 귀중한 자료가되는 판결문28건 결정문7건 수사기록4건 기타6건등 45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 기록들은 전국검찰과 교도소등 산하기관창고에 보관돼있는 방대한 고문서를일일이 뒤져 원본을 찾아낸것이다。

이번에 찾아낸 기록중에는 구한말 항일의병을 일으켰던 崔益鉉선생의 대마도유배생활을 측근자가 기록한「馬島日記」、조선총독부 北京출장소에서 발간한 중국 북부지방에 거주 한국인의 동태를 분석한「在北支朝鮮人概況」、한국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일본 사상부검사가 발간한「治安維持法違反」등 한일합방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姜宇奎·尹奉吉의사의 폭탄투척사건、新幹會사건、安昌浩·安在鴻씨등 독립운동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등재판기록의 원본도나왔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집된 기록들은 모두 원본으로 역사적문헌의 가치가 중요한것으로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등 관계기관및 학계의 협조를얻어 번역한후 독립기념관에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無免許 지체不自由者 승소

中央線침범 승용차에 事故책임

大法院 판결

「지체부자유자가 허가없이 개조한 차량을 면허없이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차량에 치었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주심 金德柱대법원판사)는 20일 劉永宗씨(24·경기 南楊州郡渼金邑好坪里218의4)가 崔○○씨(서울麻浦區合井洞369의28)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신체부자유인 원고가 오토바이를불법개조한 3륜차를 면허없이 운전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의 직접적원인은 반대차선에서 넘어온 가해차량에 있다 할것이고 원고의 특별한 사정이 사고발생의원인이 되었다고는 볼수없다」고 판시、원고에게도 30%과실을 인정한 원심을깨고 다시재판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劉씨는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은 하반신불구자로서 79년8월19일 하오8시30분께 경기楊州郡渼金面陶農里 검문소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90cc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를 면허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피고崔씨소유의 레코드로열승용차와 충돌、4m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받았으나 시중드는 사람없이는 일상생활을 할수없는 영구불구자가 되자 7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소송을 냈었다。

우박 피해 慶北23억

【大邱】지난19일 낮 12시40분부터 하오3시50분까지 軍威郡召保面등 경북도내 9개 시·군、35개 읍·면에 쏟아진 우박피해는 軍威郡 20억5천만원 義城郡 2억9천9백만원 新寧郡32만원등 3개군에만23억1천9백82만원으로 집계됐다。【肥】

全南大生 2명구속

교내시위 주동혐의의

【光州】光州서부경찰서는 20일교내시위를 주동한 전남대 자연대계산통계학과 2년 朴賢周군(22)과 경영회계학과1년 李大赫군(18)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肥】

가을비 온뒤 기온 急降下

평일보다 3~6度

가을단비가 내린뒤 기온이 뚝 떨어졌다。

20일상오 최저기온은 서울이 8·4도로 전날보다 4·6도가 낮았고 水原은 6·6도로 6·3도나 낮았다。

중앙기상대는 비가 물러간 후 화북지방의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돼 다소 쌀쌀해진 것이나 평년기온과는 별차가 없고 21일 상오에도최저5~13도로 다소 낮겠으나 곧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밝혔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제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브라질·美코스모스팀 招請
축구代表 戰力강화戰
23~30일 모두 4차례競技

제9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축구팀은 브라질의 에스포르테와 미국의코스모스팀을 초청、23일부터 30일까지 총4차례의 전력강화친선경기를 벌인다。

브라질 리오 그란데주 1부리그에 속해있는 에스포르테 일행 24명 (임원6·선수18명) 은 21일밤 내한、부산 (23일) 과 서울 (25일) 서 2차전을 벌이며、북미축구 (NASL) 81~82년 시즌 우승팀인 뉴욕코스모스는 25일 한국에 와 전주(28일)와 마산 (30일) 서 한국대표팀과 맞서게 된다。

◇경기일정

▲23일 (부산) =한국—브라질 (하오3시40분)

▲25일 (서울) =한국—브라질 (하오7시)

▲28일 (전주) =한국—코스모스 (하오3시)

▲30일 (마산) =한국—코스모스 (하오3시)

海外 스포츠

에버트、각종大會 통산2백번出戰 1백24번 優勝

페더럴 테니스서 예거 2—1로꺾어

【팜하버 (美플로리다州) AP=聯合】美國의 여자테니스 스타 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19일 美플로리다州 팜하버에서 벌어진 플로리다·페더럴 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결승에서 앤드리어·예거에 2—1 (3—6, 6—1, 6—4) 로역전승을 거두고우승했다。

에버트·로이드는 총상금12만5천달러의 이대회에서우승함으로써 3개월전 윔블던 대회결승전에서 패배한이래 27연승을 거두는동시 프로선수로서 통산 2백번째대회에 출전, 1백24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에버트·로이드는 이 대회우승상금으로 2만2천달러를, 예거는 준우승상금으로 1만1천달러를 받았다。

美헤비級 유망주 토마스選手 부상

【뉴욕UPI聯合=特約】프로복싱 헤비급의 유망주인 핑클론·토머스 (미국) 는 연습중 등을 다쳐 오는 30일로 예정되었던 게리·코에체 (남아) 와의 경기에 나갈수없게 되었다。

WBA 5위, WBC 8위에 올라있는 토머스는 지난8월 제임즈·틸리스에게 8회 KO승, 20연승의 전적을 보이고 있다。

케냐陸上의 로노 日마라톤에 출전

【나이로비AP聯合=特約】부상으로 濠洲 英연방경기대회에 불참했던 세계남자육상 장거리계의 강호 헨리·로노 (케냐) 는 오는12월 日本서 열리는 후쿠오까·마라톤대회에 출전할것으로 알려졌다。

로노는 3천m, 3천m장애, 1만m등 3종목서 세계기록을 갖고있다。

유고代表팀 監督 스페인축구 맡아

【발렌시아 (스페인) AFP聯合=特約】월드컵축구대회 전적부진으로 사임한 유고대표축구팀 밀얀·밀야니치감독은 스페인 1부리그의 발렌시아팀 감독에 취임할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레알 마드리드팀을 지도한바있는 밀얀 감독은 유럽축구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코치이다。스페인 1부리그15위에 처져있는 발렌시아는 최근 아르헨티나 대표팀 메노티감독과 계약을 맺은바 있다。

伊 프로축구選手들 임금引上요구 31일하루 罷業

兩側 조정안되면 全게임 中斷위기

【로마AFP聯合=特約】이탈리아 프로축구선수들은 임금인상과 축구협회의 징계조항 개정을 관철시키기위해 오는31일 하루 스트라이크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양측의 조정이이루어지지 않을경우에는 오는11월 21일에는 1~4부 경기가 모두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붕게敗北에 충격 西獨 여자테니스

【슈투트카르트 (서독) 聯合=特約】미국에서 활약하고있는 서독 여자테니스선수 베티나·붕게는 슈투트가르트 국제여자테니스 대회 1차전서 18살의 클라우디아·코데(서독)에게 2—0 (6—4, 7—6) 으로 패해 충격을 일으켰다。

스포츠話題

GK슈팅이 직접골인
朝大附高、體典핸드볼 對東亞戰서
종료29秒前 극적同點…끝내 優勝

핸드볼 경기에서 골키퍼가 던진 볼이 상대골안으로 들어가 큰화제가됐다。

19일 열린 전국체전 남고핸드볼결승전 朝大附高(전남)와 東亞高(부산)의 대결서 朝大附高 GK 金洙冰이 경기종료 2초전 상대골문을 향해 던진 볼이 그대로 골인되어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7m 승부 드로끝에 朝大附高가 2—1로 이겨 馬山 체전구기종목서 가장 극적인 드라머를 연출했다。

한팀 7명으로 구성된 핸드볼 경기장 규모는 길이가 40m、폭20m。골문의 높이가 2m、넓이가 3m도 돼있다。

경기장의 길이가 40m밖에 되지 않아 이론상 GK가 던진 볼이 직접 골인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는게 핸드볼관계자들의 이야기。

朝大附高는 금년도 전국대회2관왕인 東亞高를 맞아 전반6—5로 리드당한 후 후반서도 일진일퇴、경기종료 29초전에 12—11의 위기서 GK金洙冰이 東亞高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종료2초전에 승리감에 들떠있는 상대의 골문을 향해 기적적인 동점골을 던졌다。

【마산=체전취재반】

메아리

3得

몇해전 뉴욕에서 지하철파업에 맞닥친적이 있었다。지하철이 아니면 맥을 못추는 맨해턴都心 나들이는 엄두를 못낼 판이었다。

파업 며칠전부터 신문들은 市의 교통대책을 크게 실었다。맨해턴으로 들어가는 유료도로를 무료로 한다는것、都心곳곳에 임시로 주차장을만든다는것등이었다。통근자들이 몽땅 자가용차를몰고 들어 올 것에 대비한 것인데、좀 색다르게 느껴진 대책이 택시합승을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파업당일이 되자、텔리비전은 새벽부터 출근길을 비추며、교통사정을 안내했다。화면에 비친 모든 길은 자가용차로 메어터질듯했다。그 사이로 자전거를 모는사람、조깅차림으로 달리는 사람、유연하게 말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화면에 비친 그들 얼굴에서 짜증스런 터를 볼수없는것이 신기했다。사람들은 TV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싱긋웃어 보이며、마치 파업의「휨엔」이 재미있다는 투였다。기울었다지만 속없이 큰 나라、언제나 명랑한 미국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며칠을 끈 파업은、이렇게 큰 혼란없이 지나갔다。

그러나、뉴욕市가 묘안이라고 냈던 택시합승은、별 효과가 없었다。합승을 시켜도、합승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묶였기 때문이다。신문·방송은 이 점을 들어 市의 대책 미흡을 나무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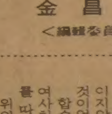
지난달 서울市의 합승금지령이 나왔을때、얼핏 생각난것 중의 하나가 그때의 견문이었다。그러면서 서울 사는 외국인들의 의견은 어떨까 싶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합승금지의 뒷공론이 한창이다。합승은 근절되지 않았다、버스가 붐빈다、택시 타기가 어렵다、中古승용차값이 올랐다、자가용차가 많이 팔린다、그러나 불편을 참고、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

궁금했던 외국인들의 의견도 독자투고와 기고로 나타났다。지난며칠동안 눈에 띈것은 3건이다。

지난10일字 코리아·타임스에 투고한 A·W·존슨씨는 합승금지뒤의 불편을 말하면서、다른나라를 여행중 택시잡기로 애먹을적마다、한국의 합승제도는「輸出감」이라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지혜롭고 센스있는」 합승제도가「잘못된 自尊心」 때문에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에 기고한 코리아·헤럴드의 루시아·심슨기자도 동감이다。그녀는 합승금지뒤의 혼잡、塡車로인한 대기오염과 낭비에 의문을 제기했다。미국에서의 출근차 함께타기캠페인을 예로들어、합승제도를 없애느니 장점을 살리라는 것이 그녀의권고다。



金昌悅 <編輯委員>

한국문화의 연구가·소개자로 널리알려진 존·코벨여사의 말은 더매섭다。택시를 못잡아 덤프·트럭신세까지 졌다니까、약간 감정이 나기도 했던 모양이다。여사는 19일字 코리아·타임스에서「이컴컴한 지시」로 누가 덕을보는가—고 묻고있다。그러면서 택시乘車難때문에 관광객들이 서울여행을 기피할 것이며、그때문에 觀光公社의 해외선전비용이 낭비로 끝나리라 경고했다。

굳이 이같은 외국인들의 생각을 여기 부연하는데는 나나름의 까닭이 있다。합승금지의 어려움을 들어「制度合乘」을 권했던 생각 (8월25일및 29일字本欄) 으로 我田引水하자는 것은 아니다。

첫째 내 취재경험에 비추어、행정하는 사람들은 英字紙를 별로 보지 않는다。그러다 보면、만으로 헤아리는 서울의외국인人口、하루 2천명을 넘는 관광객의 여론과 의견을 흘려버릴 염려가있다。

둘째 합승금지의 큰 名分중의 하나가 외국인 보기 창피하다는 것이었다。바로 그 외국인들의 의견이니、名分에 얽매이지않는 그들의 現實을 中繼해서 나쁠것이없다。

합승금지 한달이 지났으면、이제 코벨여사처럼、그것으로 덕보는것이 누구인지를 따져 볼 때가 되었다。

위의 引用에 나타난 그 해답은 간명하다。

교통행정은 半쪽의 名分을 얻었다。콜·택시를 비롯한 업자들은 같이 뛴 프리미엄의 利權을 얻었다。그러면 택시종사원과 승객이 얻은 것은? 골탕이다。

3者가 모두 얻은 것이 있다。합승금지에는 3得이 있은 셈이다。

적은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46>

안개속의 집 ⑬

『뭘 이렇게 많이 차렸니?』

『그러게말야。 겟날도 아닌데 짜장면이나 한그릇씩 시켜다 먹으면 어때서』

이러면서 교자상에 둘러앉았다。

『잰 왜 안먹니?』

교자상이 들어 오자 벽에 가 붙어 앉은 신여사를 보고 말했다。

『잰 요새 다이어트 한잖아? 칠십키로가 넘었다지 아마』

『음식냄새가 고문이겠다』

『살 안찌는 것도 큰 복이야』

『그래 요샌 왜 그렇게 먹을 건수가 많니?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다니까』

벽에 붙어앉았던 신여사가 슬금슬금 상가로 다가왔다。그녀가 제일 먼저 갈비찜을 집어들자 좌중이 까르르 웃음바다가 됐다。

『얼마나 견디나 시간 좀 잴동안이나 참지 않고…』

『날 봐라。내가 어디로 보나 고문에 견디게 생겼나』

신여사가 갈비를 아귀아귀 뜯어먹으며 말했다。

『[illegible] 구색을 갖추기는 별로 어렵지않을것 같은데 고객 동원하기는 어떨까 몰라?』

수지가 다시 좌중을 본론으로 이끌었다。

『그것도 문제 없을걸。우리 회원들이 하나같이 오지랍이 좀 넓냐。그것도 상류사회에서말야。제각기 실력 발휘하면 상류사회를 총동원 시킬수도 있을거야。그 바닥도 워낙 좁거던』

『너희들 실력만 믿는다만 처음 벌이는 일이라 불안해서』

수지가 회장답게 신중하게 말했다。수지는 회원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상류사회란 소리에 호기심과 열등감 비슷한 걸 느꼈다。

그녀는 그들과 잘 어울릴뿐더러 그모임의 주도자격인데도 상류사회라는 것으로부터는 국외자라고 스스로생각하고 있었다。사는 것이 그들만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높은 관직에 있지않으면 큰 기업의 경영자들인데 기욱은 엔지니어에 불과하다는게 그녀에게 은밀한 열등감이 되고 있었다。

상류사회래야 별 걸라구。지금 이자리가 바로 그 본고장일지도 모르지。

그 고장에 대한 호기심은 이렇게 달랠수가 있었다。열등감은 모두 놓고먹는 여편네들중에서 자기만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당당한 일을 가졌다는 걸로 만회할수가 있었다。

기욱이 아무리 못마땅해하건 비웃건 수지에겐 시간강사자리가 이렇게 쓸모가 많았다。기욱이 남편으로서 채워주지못한 허영심까지도 그것에 의하여 적당히 메울수가 있었다。

『신여사、다이어트로 체중 줄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건 동물의 기본적인 쾌락인데 그걸 무리하게 억제하면 살맛이 나나요。드시고싶은대로 실컷 드시고 그 대신 운동을 하세요。요새 살빼기 운동이 얼마나 발달했다구요』

미주가 이렇게 되바라진 소리를 했다。

『너도 나이 먹어봐라。만날 그렇게 잘 먹고 살 안찌나?』

『어머、악담하지마세요』

미주가 허리를 꼬며 울상을 짓자 좌중의 질시(嫉視)가 일제히 그녀의 가는 허리로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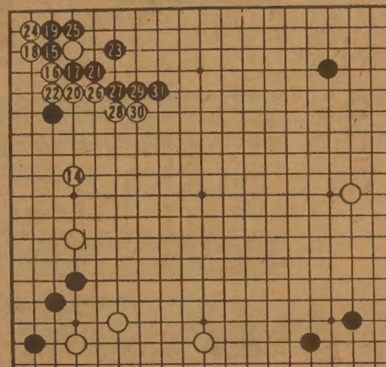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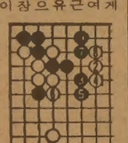
第2局 第2譜 14~31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盧永夏

黑 (6段) 張秀英

서로 세력을 확장





白14의곳을 黑에 넘겨줄수 없는입장 필요도없거니와 이것으로 포석의틀이 짜여지고 중반전에 돌입하는데 張6단은 우선 黑15에서 수습을 꾀한다。보통쓰는 수법으로서 이하 白22까지 이런 경우의 정석과정이다。다만 張6단이 黑23으로 근자유행하는 정석을 채택한데에는 이유가 충분하다。보통이면 黑23은 24자리를 꼬부린다。즉 참고도처럼、黑1이면 白2가 때림。黑3이하 9까지되는것이 어김없는 정석이다。그렇지만 참고도는 상변에 黑세력 펴지못하는 흠이 있다。따라서 실전처럼 상변에 큰세를 펴게 된다하여 黑23이근자의 유행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黑31까지 張6단은 소기의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이과정에서의 수순은 일반아마추어가익혀둘일이라고한다。

우선 黑23이면 白24는 최선。黑25를 응수시킨다음 白26、28은 일견 속수의 표본인듯 하지만「그러나 白자신도 좌변을 확실하게 넓히는 뜻에서 적절하다」고 [illegible]8단은 말한다。

그러고보니 쌍방이 제각기 대세력으로 맞서는 양상인데 선수를 잡은 [illegible]7단은 작전의 방향이 잡혀지지 않는지 다음 수를 얼른 두려 하지 않는다 【一凡】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한인 양로원 기금마련

제1회 청소년 자선 예술제

폭소의 Ms. 코리아 선발대회,

5인조보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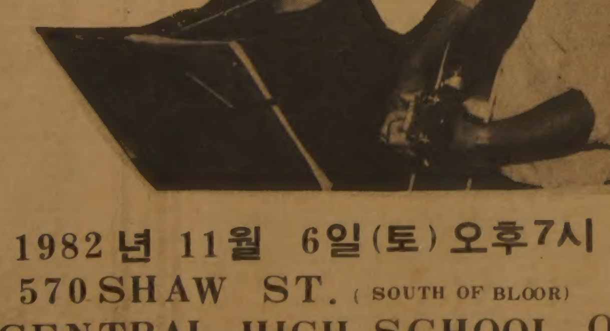
피아노·보련

바이올린 송영철·서정

MC이성희, 대학가의 귀염둥이 이인배

권도웅과 그의 그룹

플룻·주정희



찬조출연: 한인교향악단 실내악, 등불중창단
김용순무용학교,

티 켙: 성인$5, 노인$3
판매처: 각한인업소

일시 : 1982년 11월 6일(토) 오후7시
장소 : 570 SHAW ST. (SOUTH OF BLOOR)
CENTRAL HIGH SCHOOL OF COMMERcE

주최: 토론토한인회

후원단체 총영사관, 체육회, 실협, 코리아타운번영회,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대학생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홉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팀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잼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트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트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주인이 여러 가게 운영으로 그로서리 가게
매니저를 급히 구합니다.
전화 : 466-7698 Mrs. 정

입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5살 여자아이
전화 : 533-3545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주말에 도넛숍에서 일하실분 구함.
전화 : 977-0303 다운타운 지역.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헬퍼구함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팔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
Ossington × Bloor.
전화 : 531-1023, 531-5005

COIN LAUNDRY 급매코자 함.
(그린우드×코스본) 가격: $16,000
리스2년+옵션 전화 : 537-4910 Mrs.김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버섯농장과 커다란집 매매함. 더이상 알고자 하시는분은 연락주세요. 영어 편지로 문의 바람.
FRANK MOLICA
R.R. #4 Bowmanville
Ontario. L1C 3K5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Tuck Shop 급매
좋은조건으로 양도 하겠음. 직접내방 요망.
2233 Hurontario St. missi.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컴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렌트: $450, 리스: 4년반
아스킹: $12,000+스탁. 전화: 654-470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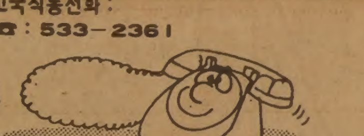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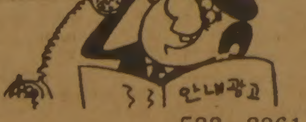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베출러 아파트 서부렛(Sublet) 합니다.
11월초 부터 입주 가능. 월: $168.-
전화 : 533-0668 (저녁 7시이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533-2361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6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가을철에 구미를 돋구는

쌀의왕자
D·Y 가주미 햅쌀 곧 입하!

아래 설문에 정답을 주시는 고객에게 상품 가주미 1푸대를 FREE로 드립니다.

정답자가 많을때는 10명을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문 1 2 답(번호)

①가주미는 밥맛이 구수하다 아니다 ( )
②가주미는 밥이 많이 붇는다 안붇는다 ( )
③가주미는 물에 당구었다가 하면 쌀이 기름지다 아니다 ( )
④가주미는 카나다에서 우리교포가 국보보다 많이 애용한다 안한다 ( )
⑤가주미는 다른 장미쌀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아니다 ( )
⑥가주미는 토론토 어느식품점에서도 살수있다 없다 ( )

※가주미보급을 위해 특별히 조언하실 말씀

가주미를 사실분은

삼복식품
서울식품(서부·동부·해밀톤)
한밭식품
제일식품 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실곳

■ 위식품점 또는 D.Y. import

추첨일

■ 11월30일(화) 낮12시

장 소

■ D.Y.사무실